

12:29AM 5월 12일 전반적인 계획은 영화를 보며 심신을 "편안"하게 하자였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진격의 거인 5화 보니까 진짜 오싹하고 기분 좋구만 그려;;;

안밤 등업하고 바로 자야지. 11시 해피이벤트 in 상상시네마, 3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in 필름포럼, 5:30 월플라워 in 필름포럼

12:57

어떠어떠한 계기로 내려와 카톡. 나도 참 많이 음흉한 것 같다.



9:00

날씨 꼬락서니 봐라...

9:53

새암공원 쪽에서 중앙 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이슬람교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M7111버스를 탔다. 이슬람교도들이 이렇게 먼 파주까지 올 일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카드를 찍는데 잔액이 부족하신 분, 다인승인데 제대로 설명 못하시는 분, 카드를 다시 대야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분 등등 버스기사 아저씨께서 많이 욕보셨다 ㅋㅋ 그래도 버스 시간 간격 지키시는 거 보면 신기방기할 뿐...



1:19

해피이벤트를 보고 결혼, 육아에 대해 더욱 자신이 없다...고 느끼던 와중, 하버드 갈 실력도 안되면서 하버드생들의 고초, 우울증 다큐를 보며 '역시 하버드 안가길 잘했어'란 아규정전식 정신승리를 시전하는 것 같아 좀 웃겼다.



명동갈국수, 갈비만두 뭘 먹을까 싶다가 3시 영화 시간에 맞추려면 가까운 곳으로 가자 싶어 합정역에 갈비만두를 먹으러 가려했다. 홍대에서 한정거장 거리인지라 그냥 걸어가기로 했지. 근데 열심히 걷던 도중 깨달았다... 반대편으로 왔다는걸...

다시 홍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오향장육 족발집을 발견했다. 탐탐정식이 7000원이래서 올ㅋ하는 생각에 냉큼 들어가서 여쭙봤다. 탐탐정식은 매운 족발이래서 콜!했는덱ㅋㅋㅋㅋㅋㅋㅋ 기본이 2인분이랙ㅋㅋㅋㅋㅋ

그래도 맘씨 좋은 어머님과 주방장 아저씨가 1인분도 해주신대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ㅋㅋ 다음에 꼭 부모님 모셔와야지♥

2:39

졸라 더워 뒹지겠다!!!! 아침에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입고 나온 두꺼운 자켓이 두시간만에 애물단지가 되다니...진짜 물생사 역시 새옹지마다——;

필름포럼은 CGV처럼 영수증이 입장표 대용이라 맘에 안든다! 그래도 공연표는 빠닥빠닥한 느낌의 종이가 뭔가 남는 느낌이라 좋는데ㅠㅠ 무튼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영화 포스터들이 놓여있길래 본, 그리고 볼 영화들만 집어들었다. 홀리모터스, 해피 이벤트, 월플라워, 4월 이야기... 지슬과 러브레터 포스터는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뭐 내가 전문 콜렉터도 아니고 ㅋㅋㅋ 구겨지지 않게 잘 모셔가야지♥

영화 시간이 좀 남아서 아래한테 엽서를 쓰는데 이런건 역시 빨받을때 써야하나보다.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감이 안잡힌다:::



4:50

???난 분명 영화 소개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에게겐 교황이 있다는 상당히 코믹영화로 봤는데...?::: 마지막씬을 보고. ..?!?!... 진짜 이려고 나온 것 같다. 실제 바티칸 교황청에서 신성모독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그래도 바티칸 교황청의 콘클라베를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 뭔가 있을법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추기경님과 교황님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잘 나타내준 것 같다. 내가 나이롱 신자라 그런지 멜빌 교황님의 선택은...믿는 자의 불순종보다는 인간의 진정한 용기의 의미로 좀 더 다가왔다.

5:09

젠장 연극은 하루종일 한 네개쯤 본 것 같은데...? 벌써 피곤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삼각커피우유를 사마셨다. 이거 말고 매일유업의 우유 속의 코코아를 먹고 싶었는데 천원짜리, 내가

가진 돈은 990원;;; 그래서 800원짜리 삼각커피우유를 먹었다. 아까 땀흘리고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쉬이 졸립네;;; 이따가 썩운하고 만나기로 했다. 나름 5월 12일 다이어리 프로젝트의 훌륭한 마무리 으흐흐...

